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5:22-33(현대인의 성경)

1. 말씀

22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23 그러나 이제는 이 지방에서 할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를 두고 버르던 대로
24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먼저 로마에 있는 여러분을 방문하여 얼마 동안 교제를 가진 후에 거기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25 그러나 지금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사는 성도들이
26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정성껏 헌금한 돈을 전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27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빛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축복을 나눠 가졌다면 마땅히 물질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28 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안전하게 전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29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축복을 가져가리라고 믿습니다.
30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31 내가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섬기는 일이 그 곳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2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33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을 어떤 상황에 처해있습니까?(24절)

→ _____

- 30-31절에서 바울은 어떤 부탁을 하고 있나요?

→ _____

- 하나님이 나의 계획이나 꿈을 멈추게 하셨다고 느낀적이 있으신가요? 그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 _____

-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 _____

- 30-31절에서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삶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나요? 내가 요청할 현재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바울은 고민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으며,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하고 있는가? 내가 떠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남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당신의 고민은 무엇이고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

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5:22-33(로마 방문을 갈망)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하고자 로마 교회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 했으며, 그 여정을 위해 로마 교회가 기도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위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동역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변함없는 소망과 열정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로마 정부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어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하지만, 그는 그 상황을 근위병들을 전도할 기회로 삼은 것을 보며, 큰 꿈을 현실로 바꾸는 바울 사도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복음은 단지 말씀 선포로 끝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역사를 배웁니다.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부탁했던 바울 사도의 열정과 헌신을 본받길 소망하며, 주님, 저에게도 복음에 빛진 자로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알고 행했던 것처럼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6. 기도